

200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목회 상담의 개혁주의적 접근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 전공

박 홍 규

목회 상담의 개혁주의적 접근

지도교수 강 병 문

이 논문은 목회신학석사학위  
(Th.M. in Counseling)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 전공

박 흥 규

박홍규의 목회신학석사(Th.M. in Counseling)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6년 11월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 대학원

## 감사의 글

부족한 자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와 동행하시어 이렇게 논문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논문의 방향성과 논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도해 주시며, 애정과 사랑으로 자상하게 매 시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강병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통과, 자료를 제공해주고, 2년동안 함께한 학우 심완성 강도사님과 김미정 전도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성도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늘 부족한 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와,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늘 옆에서 목회와 학업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김숙경 사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2006년 11 월

박홍규 드림

## 목 차

감사의 글 .....	i
목 차 .....	ii
국문초록 .....	i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4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제 4 절 연구 질문 .....	5
제 2 장 목회상담의 기본 개념 .....	5
제 1 절 상담의 용어정리 및 의미 .....	5
제1항 용어정리 .....	5
제2항 상담의 어원 .....	6
제3항 용어적 의미 .....	7
제 2 절 상담의 정의 .....	9
제 3 절 목회상담의 목표 .....	10
제 3 장 목회상담 이론 .....	16
제 1 절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론 .....	16
제1항 그리스도 중심, 성경중심 .....	16
제2항 성령과 상담 .....	19
제3항 권면적인 상담자인 목회자 .....	20
제4항 죄의 고백 .....	22
제5항 권면적 상담 원리 .....	23
제 2 절 Gary R. Collins의 기독교 상담론 .....	25

제1항	상담의 세 가지 접근법 .....	26
제2항	상담 원리 .....	27
제 3 절	Lawrence J. Crabb의 성경적 상담론 .....	32
제1항	격려의 상담 .....	33
제2항	권고의 상담 .....	34
제3항	교화의 상담 .....	35
제 4 장	그리스도의 상담론 .....	37
제 1 절	상담자로서의 그리스도 .....	37
제 2 절	그리스도의 상담 목표 .....	38
제 3 절	그리스도의 상담사례 .....	42
제1항	니고데모와의 상담 .....	42
제2항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 .....	43
제3항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의 상담 .....	45
제4항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음 .....	46
제5항	막달라 마리아와의 상담 .....	46
제6항	베드로와의 만남 .....	47
제7항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제자들과의 상담 .....	47
제 4 절	예수님의 상담원리 .....	48
제 5 절	예수님의 상담특징 .....	49
제 5 장	목회 상담을 통한 사례 연구 .....	54
제 1 절	알콜 중독자 상담 .....	54
제 2 절	은둔주의자 상담 .....	62
제 3 절	청소년 상담 .....	70
제 6 장	연구요약 및 제안 .....	77
참 고 문 헌	.....	81
영 문 초 록	.....	84

## 국문초록

# 목회 상담의 개혁주의적 접근

박 홍 규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강 병 문)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경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실제 상담을 위해 잘 알려지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 사람의 연구 이론과 연구 방법등을 통해 목회의 상담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단계이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목회 상담을 위해 목회의 기본개념과 상담의 정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목회상담 이론들을 살펴보며 교회내에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상담을 할 것인가 연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실제 상담사례들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상담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상담 모델을 통해 목회상담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어 목회 현장의 상담사례에 접근했다. 정확한 상담의 목표 설정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개혁주의적 상담 방법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더욱 연구하여 목회상담을 더욱 구체화하여 교회에 점차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담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분을 통해 명확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끊임없이 교회는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 했다고 하지만,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질적, 양적으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숙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상담목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경 중심으로 상담하며 질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 제1장 서론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을 진행함에 따른 연구배경,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 본 연구의 전체적인 주제를 위해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고, 주요 용어정리 및 용어 의미를 기술하여 논문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제1절 연구의 배경

목회 상담이 왜 필요한가? 일반 상담 이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때에 구태여 목회 상담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반 상담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맞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절적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회 상담이 필요한 것이다.<sup>1)</sup>

최근에 들어서서 한국교회 안에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보게된다. 이 같은 관심을 설명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본다면 먼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산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전보다 매우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발맞추어 밀려오는 서양의 문화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기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세대간의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짧은 시기 동안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

1) 이현규, 목회상담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3), p.52.

성도들의 적지 않은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하지 못하며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 상담에 대한 관심을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 전체가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었듯이 하나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중심의 인구 증가와 차량의 증가, 이에 따른 교통사고율의 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담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목회 상담 사역은 목회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목회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 교회에 대두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목회 상담학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위치를 고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내에서 상담학이 차지하는 자리는 실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문제들은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설교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목회 상담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한다. 즉 설교가 문제를 제기하여 죄를 깨닫게 하면 목회 상담은 그 찢림 받은 이를 돌보고 치료하는 것이다.<sup>2)</sup>

현재의 한국 교회는 상담에 대한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목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자를 그리스

---

2)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정삼지 역, 성공적인 목회 상담(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85), p. 24.

도에게로 인도하여 죄에 빠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병들고 약한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들며 강한 그리스도인을 더 성숙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 상담자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이 목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목회 상담이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은 건전한 신학적인 기초를 떠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칼빈 주의적인 기초를 떠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학문이 발전할수록 목회 상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목회 상담에 있어 모두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상담자에 따라 신학적인 배경과 개인 신앙에 따라 성경의 적용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특히 예수님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검토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목회 상담학은 성경적 세계관을 확산시키는 한 영역이다. 신앙과 학문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성경적 배경을 가진 학문의 정립과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sup>3)</sup>

따라서 목회상담학은 종합 학문으로써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학문의 증진과 확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sup>4)</sup>

---

3) 정정숙, 기독교 상담과 주변 학문의 이해 (신학지남, 제60권 3집, 1993년 가을호), p.218.

4) 이현규, op. cit., p.16.

## 제2절 연구의 목적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매우 복잡적이고 복잡해져 세계화에 발맞추어 밀려들어오는 서양의 문화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문화적인 차이로 성도들의 삶과,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많은 상담 이론들이 발표되고 상담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으나 많은 상담 이론들이 관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목회 상담도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연구함으로써 개혁주의적 입장의 목회 상담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상담한 실제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의 목회 상담의 특징 이론이나 상담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목회 상담의 모델로 삼는 것이 그 목적이다.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것은 1장에서는 상담의 배경과 목적, 방법과 범위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상담의 용어정리와, 어원 그리고 의미, 목회 상담의 정의와 목표를 다루고, 3장에서는 목회 상담자들의 대표 이론들 곧, Jay E. Adams 권면적 상담, Gary R. Collins 기독교 상담론, Lawrence J. Crabb 성경적 상담론의 대표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상담의 이론은 정립하고, 4장에서는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고 예수의 상담의 목표와 원리와 특징을 살펴보고 5장에서는 실제 상담사례들을 통하여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마지막 7장에서는 전

체적인 연구요약 및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제4절 연구 질문

##### 1. 전체 논제 질문

목회적 상담에서 예수님의 상담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는가?

##### 2. 논제 질문에 따른 세부 연구 질문

- 1) 목회상담의 기본 개념과 목표는 무엇인가?
- 2) 목회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이론과 예수님의 상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목회상담에서 예수님의 상담 원리를 어떻게 지향해야 하는가?
- 4) 목회상담에서 성경적 상담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 제2장 목회 상담의 기본 개념

#### 제1절 용어의 정리 및 상담의 어원과 의미

##### 1. 용어의 정리

1) 개혁이란 말은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는 것”, 즉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든 교회의 제도이든간에 그것이 오직 성령(Sola Scriptura)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란 말은 칼빈주의란 말의 의미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sup>5)</sup>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주권이 만물의 궁극적 원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

5) 정성구, 한국 장로교회 자화상과미래 (제29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 p.27.

분양에서 하나님과 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구원론 적으로는 오직 인간의 죄악된 영혼이 유효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인 것이다.

2) 목회 상담의 의미는 독일어 seel sorge의 seele(영혼)이라는 말과 sorge(돌봄)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인간영혼을 돌봄이라는 뜻이 된다. 여기서 영혼(seele)이란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인격체로써 영혼(seele)를 의미하고 '돌봄(sorge)이란 라틴어 'cura'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의 'care'(돌봄)과 'cure'(치유)의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6)</sup>

3) 진단(diagnosis)이라는 용어는 주로 의학적인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후(prognosis)라는 용어와 구별되어 사용되어 진다. 진단이란 질병이나 증상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후는 질병이나 증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4) 돌봄(care)은 고대 영어의 용법에 있어서 care는 「정신적 고통」 또는 「염려」를 의미하였으며, 오늘날 care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관심·걱정, 책임있는 주의(注意)를 의미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관심·배려·좋아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까지도 나타내준다.<sup>8)</sup> 그러므로 돌본다는 것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입장에서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sup>9)</sup>

5)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은 하워드 클라인벨이 말한 것같이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주기를 따라 배풀어지는 상호 치유와

6) 이현규, op. cit., p.581.

7) 이관직, “목회상담학”(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p34.

8)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 교문사, 1984, p.505.

9) John Patton,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옮김, (서울: 은성, 2004), p.33.

성장을 전제로한 넓고 포괄적인 사역을 가리켜 쓰는 말이다”라고 한다.<sup>10)</sup>

## 2 상담의 어원

상담은 일반 심리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방법을 개발해 왔으며, 정신적으로 고통과 불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며 성장과 발전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자들을 도와서 자기완성을 실현하게 도와주려고 개발한 것이다.

원래 상담(Counseling)이란 용어는 라틴어 Consul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하다(to consider), 반성하다(to reflect), 숙고하다(to deliberate), 상담하다(to consult)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상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상담’과 ‘상담자’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고찰과 어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처음에는 상담자라는 말은 법률, 경제, 종교 등의 영역에서 변호사, 고문, 조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다가 1908년 직업, 지도의 시작과 아울러 교육계 등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뜻으로서의 상담의 용어는 윌리엄슨(E. G. Williamson)의 ‘학생 상담의 방법’이라는 저서에서 사용된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목회상담을 바로 이해하려면 일반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1)</sup>

---

10) Howard Clinebell, 「목회신학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p.47.

11) 민영순, 교육 심리학(서울: 교육 출판사, 1974), pp. 402-403.

### 3. 상담의 용어적 의미

실제적 의미에서 상담이란 피상담자(counselee)가 상담자(counselor)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은 주로 언어적 수단을 매개로 하여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 감정, 태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sup>12)</sup>

상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롤러 메이(Rollo May)는 상담을 “인격 변화에 이르게 하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라고 했다.<sup>13)</sup> 그는 “상담은 기술이나 그림이나 음악 이상으로 인간을 격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고 했다.

폴 존슨(Paul Johnson)은 “상담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책임감과 정서적인 이해의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에서 생기는 반응적인 상호관계”라 하였다.<sup>14)</sup>

칼 로저스 (Carl R. Rogers)는 “효과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성된 수용적 관계에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걸어 나가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sup>15)</sup>

한편 로저스(Rogers)의 비지시적 방법을 목회 상담 방법에 적용한 힐트너 (S. Hiltner)에 의하면 “상담은 피상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으로써 기성 형식의 충고라든가 권면 혹은 명령으로 피상담자로 하여금 피동적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피상

---

12) 김태목, “목회자의 상담”, 목회와 신학 제3집(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1970), p. 212.

13) 황의영, 목회 상담학 원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p. 23.

14) Ibid., p. 23.

15) Carl R.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승호 역,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1983), p. 30.



담자 자신이 행동할 수 있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통찰력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과정”<sup>16)</sup>이라고 했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학자들의 정의에 따른 공통점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피상담자 중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는 이론을 기초하고 있다. 상담은 인격 변화에 초점을 두며 인간 중심적이다.

## 제2절 목회 상담의 정의

목회 상담은 일대일 혹은 소집단의 목회자로서 개인이나 소집단 속에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갖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목회 상담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시워드 힐트너 (Seward Hiltner)는 목회 상담의 목적을 교회 자체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목회 상담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또는 기독교인의 사귄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형제의 사귄과 사랑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며 이전의 의심과 불안 대신에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불화가 지배하던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했다.<sup>18)</sup>

---

16) 황의영, op. cit., p. 23.

17) Hawo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 상담 신론(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p. 47.

18) Seward Hiltner, *Pastor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 카운셀링(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6), pp. 18-19.

목회 상담은 학문 연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실현시키려는 노력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목회 상담은 상담자가 신학을 배경으로 삼고 신앙과 은혜를 전경으로 하며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sup>19)</sup>

목회 상담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 아담스 (J. E. Adams)는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 시키시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sup>20)</sup>

결국 목회 상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숨은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sup>21)</sup>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한 변화를 기대하며 상담자는 성령 안에서 피상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명령, 지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목회 상담의 근본정신은 예수의 정신 즉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하시는 말씀에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22)</sup>

---

19) Ibid., p.19.

20)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 상담학(서울: 세종문화사, 1978), p. 371.

21) 반피득, 목회 상담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8), p. 12.

22) 황의영, op. cit., p. 56.

#### 4절 목회 상담의 목표

일반 상담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고 통찰하고 해결하는 자율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면, 목회상담은 일반상담이 추구하는 목표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인격의 완성에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목회 상담의 기본 목적은 근접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접적인 목적은 피상담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해 주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정서적 안정을 얻게 하여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인 것으로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이 가고 어지러워지고 깨어진 인격의 재창조를 뜻하는 영적인 변화와 회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신체적인 건강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순환된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건강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sup>23)</sup>

따라서 목회 상담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시키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상호육구 충족의 관계를 제대로 수집 못하고 고통스러운 정도로 깊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좌절과 무능을 실감하는 자를 도와서 하나님과 이웃을 보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또한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

브리스터 (C. W. Brister)는 “죄의 본질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으

---

23) 이정희, 상담자 예수(서울: 그린파스츄어, 1993), p, 23.

로 삶을 잘못 처리하는 행위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삶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허덕이는 피상담자들을 목회자는 목회 상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고 죄를 짓는 데서 수정 또는 전도시켜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를 받게 해야 한다. 피상담자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의 절고를 담당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목회 상담은 한 인간 상담자와 고난의 사람 내담자가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상담자는 공감도 하고 시각 조정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중요성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불가능하고 멀리 보이던 예수님이 그들 자신과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고 드디어 그 분이 그들 사이에 계셨음을 깨닫고 그 분이 내담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야 한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치유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1) 목회상담은 기독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바로 이해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종교 중의 하나 혹은 전래의 샤머니즘적 요소와 혼합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경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 성경이 종교의 경정 중 하나라는 생각이나 수양서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

24) 오성준, 목회 상담학(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4), p. 92.

셋째로, 교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곳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바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sup>25)</sup>

2)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내가 처한 곳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면서 내 편에서 준다. 즉 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고 지지하고 변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체휼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째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sup>26)</sup>

둘째로, 우리를 기꺼이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탕자와 세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다.

셋째로,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시다.

넷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섯째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여섯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일곱째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25) 김재술,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세종문화사, 1980), p. 95-96.

26) 김재술. op. cit., p.29.

여덟째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3) 사죄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목회상담의 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므로 목회상담은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상담자가 이를 돕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창조 능력을 충분히 발견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달성한 셈 이라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확신 속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이렇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내담자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 받고 죄 사함 받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인이다.<sup>28)</sup>

그러므로 상담과정에서 죄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사죄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적인 성숙이 내담자에게 촉진되어야 함을 목회상담자는 특히 기억하고 목회상담의 중요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영적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데는 목회상담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

27) 이정희, op. cit., p.29.

28) Ibid., p.29.

목회상담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감으로써 참된 감사와 참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다.

5)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이 자유를 구속하는 요소는 무엇들인가? 특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로,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 사로잡히는 것이다.

둘째로, 복음적 신앙을 지배하려는 완고한 전통과 제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저해한다.

셋째로, 죄와 죄책감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저해한다.

넷째로, 부패와 부정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다섯째로, 거둬나지 못한 인간들에게 속박당하는 것이다.

여섯째로, 실존적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실로 술, 니코틴, 마약, 향락, 도박, 거짓, 음란, 물욕, 명예욕, 그밖에 완고한 옛 사람,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수없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목회상담은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회상담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며, 위기에 대처하며, 결단하고, 책임성 있게 사건에 직면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고치고 또는 그가하기를 두려워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up>30)</sup>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다 충분

---

29) Ibid., p.32

30) Ibid., p.35

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sup>31)</sup>

### 제3장 목회 상담 이론

#### 제1절 아담스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론

##### 제1항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 상담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상담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어 크리스천을 만드는데서 끝나는 상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아신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담하는데 관해서 제시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sup>32)</sup>

신약 성경이 복음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도 권면적인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3:16),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15:14)고 말함으로써 골로새와 로마서의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크리스천들의 매일의 정규적인 활동으로서 권면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권면을 충분하게 하려는 것이다. 딤후3:16에서 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

31) Ibid., p.35

32) Ibid., p. 119.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니라”라고 기록했다. 이 곳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권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권면적인 상담은 성경의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  
다.<sup>33)</sup>

권면적인 상담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내담자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권면적인 상담은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극복해야만 하는 장  
애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34)</sup> 즉 만나는 사람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권면적 상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  
키기를 원하시는 피상담자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면적  
인 상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인격과 행동의 변화에 있다.<sup>35)</sup>

두 번째 요소는 문제를 언어적인 수단으로 의해서 권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권면은 피상담자의 성격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  
적으로 상담적인 형태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권면이라는 말 자체에는 공식적인 상담 상황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담과 비공식적인 상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인 관용법으로 권면적인 상담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는 개인의 행동 유형이 성경적인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을 올바르  
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권면적 상담에서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왜”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라는 데에  
강조를 두고 있다.

---

33) Ibid., p. 132.

34) Ibid., p. 121.

35) Ibid., p. 124.

권면적 상담은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행동 유형을 바로 잡아 주려고 노력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잘못에 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고 “무엇”에다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초점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면적인 접촉의 둘째 요소는 성경적인 원리들과 실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인격적인 접촉과 상담을 하는 것이다. 어떤 성경적으로 정당한 언어적인 수단이 채택될 것이다.<sup>36)</sup>

세 번째 요소는 권면적인 활동의 배후에는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항상 말로 징계하는 것이 피상담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치 곤란한 크리스천을 “형제와 같이 권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살후3:15) 피상담자를 괴롭히는 그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장애물을 정면에서 부딪치고 극복하게 하며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데 있다.<sup>37)</sup>

권면은 사랑과 깊은 관심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피상담자들을 선하게 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징계하며 바로잡는 것이다. 바울은 골 1:28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권면적으로 상담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

36) Ibid., p. 126.

37) Ibid., p. 130.

## 제2항 성령과 상담

상담은 성령의 사역이다. 유능한 상담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상담을 할 수 없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꼭 같은 종류의 다른 상담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시는 보혜사라고 명시되는 분이시다.<sup>38)</sup> 구원받지 못한 상담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상담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의 지시와 능력을 이용하지 못한다. 크리스천에 있어서 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시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를 부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선천적인 선함을 긍정하는 것이다.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다면 피상담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던져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절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적인 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sup>39)</sup> 성령은 주로 상담자에게 주신 은사의 적절한 활동과 함께 역사 하신다. 이것은 성령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은사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나타내신 바와 같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모두 똑같이 성령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 제3항 권면적 상담자인 목회자

### 1. 목회자의 직무

성경은 목사를 목회자라고 부른다. 시23편에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 그의 지팡이는 양들이 절벽의 낭떠러지로 떨어

---

38) Ibid., p. 95.

39) Ibid., p. 96.

지는 것을 막고 막대기는 양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어떤 짐승을 쫓는데 사용되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을 공격하려고 숨어 있는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들을 지켜준다. 이 말쑥은 목자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빠진 양들을 돌보아 준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목회 사역의 큰 부분은 양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피곤해 하고 낙심한 양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목회자들은 또한 자기의 양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sup>40)</sup> 목회자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책임이 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므로 목사는 그의 목회적 책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권면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목회자는 피곤에 지치고 연약하며 낙심한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양들이 쉼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그의 목회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 2. 복음 전도

상담은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신 것은 상담자가 하는 일을 결정하고 있다. 상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즉 은혜와 믿음, 복음과 성화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상담은 구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가치를 강요한다. 복음 전도는 복음으로 상담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적과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담자들은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것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

40) Ibid., p. 150.

죄를 가지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만 한다.<sup>41)</sup>

### 3. 성 화

상답은 단순히 성화의 수단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성화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또한 과거의 결정들이 떼레 파사의 법처럼 견고하게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법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기사를 다시 읽어야만 한다. 피상답자들은 과거의 결정들이 어제의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 성장은 성숙을 의미한다. 즉 성장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과 사상이 세련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피상답자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며 성장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성화를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성화의 교리는 반드시 성결하게 성장하는 것을 내포한다. 크리스천은 더욱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변화를 해야 한다.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 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답은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성장한 옛 유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성장하는 새로운 유형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도전이고 기회이며 의무이다.<sup>42)</sup>

---

41) Ibid., pp. 151-158

42) Ibid., pp. 159-164.

#### 제4항 죄의 고백

상담 과정에서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이나 자기 계시(self-revelation)가 심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잠 28:13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말씀은 그 말하는 뜻이 분명하다. 인간의 문제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 죄를 숨기면 불행과 패배와 멸망을 가지고 온다.<sup>43)</sup>

시32편에서 특히 언급된 것은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죄의 고백이다. 다윗은 이것을 5절에서 7절까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은 범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다.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고백을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과 꼭 같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는 것이다. 또한 고백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 개념은 성경적인 상담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크리스천은 오직 죄를 고백함으로써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시51:14-15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죄를 용서받은 행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담스(Adams)는 권면적 상담을 통해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내담자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참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역할 연습(role-playing)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

43) Ibid., p. 199.

고백을 시킴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데 역할 연습은 내담자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 주므로 교정이 필요한 내담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데 도와준다.<sup>44)</sup>

## 제5항 권면적 상담 원리

상담자로서의 목회자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떠한 원리에 입각하여 진행해 나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담 학자들은 여러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의 원리<sup>45)</sup>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1. 피상담자의 자기 훈련

상담자로서의 목회자는 피상담자들이 자기 훈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자들은 상담을 시작하면서 피상담자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피상담자를 돕는다.

이러한 노력은 첫째로, 피상담자 즉각적인 도움을 받게 되며 당면하고 있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둘째로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피상담자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sup>46)</sup>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경적인 해결이 도달하도록 성경의 사용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피상담자 가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부터 상담을 하여야 하는데 상담자는 먼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

44) Ibid., p. 220.

45) Ibid., pp. 299-310.

46) Ibid., p. 300.

성경적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권면적 상담의 원리는 “모범을 통하여 가르쳐야 하며 교훈을 통하여 설명해야 한다”<sup>47)</sup>

## 2. 발전을 위한 기록

피상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일의 결과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피상담자들이 기록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며 자기 문제를 기록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sup>48)</sup>

## 3. 팀 상담

목회자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하여 팀을 만들어 상담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못지않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실마리가 되고 피상담자에게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다.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피드백(Feedback)이며 상담자는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아담스(Adams)의 권면적 상담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아담스(Adams)의 상담 이론은 주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청, 용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담자의 입장이 너무 권위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아담스(Adams)의 상담 이론은 상담자가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를 때는 권면적 상담 방법을 체계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

47) Ibid., p. 301.

48) Ibid., p. 305.



내담자가 기독교인이 아닐 때에는 적용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아담스(Adams)는 일반 상담 이론을 모두 비성경적이라고 배척하므로 독단론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성경 지식이 풍부해야겠지만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아담스(Adams)는 매우 소홀했다.

## 제2절 Gary R. Collins의 기독 상담론

콜린스(Collins)는 “크리스천 카운셀링”과 “훌륭한 상담자”에서 그의 상담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충고하거나 격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두 사람 또는 둘 이상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수께서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의 취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제이다.<sup>49)</sup>

제자화 상담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영적,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어짐에 따라 평안을 찾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발전케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sup>50)</sup>

---

49)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12.

50) Gary R. Collins,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카운셀링 가이드(서울: 기독지혜사, 1993), p. 243.

## 제1항 상담의 세 가지 접근 방법

### 1. 인본주의 및 세속적 접근 방법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상담 방법에서는 하나님께 일체 아무런 자리도 양보하지 않는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잠시 관여할 뿐이다.

### 2.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참여하는 방법

인본주의 및 세속적 접근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참여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담이 있다. 여기서도 목표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자 내지 보조요법사로 간주된다.<sup>51)</sup>

### 3.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법

위의 두 가지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법이라고 표현되는 방법이 있다. 이 접근 방법은 인류를 위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께서 상담 관계에 들어오셔서 상담자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내담자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킨다.

상담자는 이러한 변화가 내담자와 하나님 사이에 조화를 회복시키고 그와 타인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그의 내부 갈등을 해소시키고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평안을 심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접근 방법을 지

---

51) Ibid., p. 35.

향하려고 노력한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는 기꺼이 제자의 특징을 개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자는 상담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진다.<sup>52)</sup>

## 제2항 상담 원리

1. 어떠한 상담 관계에서든지 상담자의 인격과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신앙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성경적인 상담자는 온유한 사람으로 내담자에게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다. 좋은 상담자의 자격 기준은 높은 것이기는 하지만 전혀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귀면서도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기준을 갖출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작은 낱말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상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효과적인 상담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론적인 배경이나 요령 때문이 아니라 감정 이입과 순수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sup>53)</sup> 예수께서도 감정 이입과 따뜻함과 순수함을 함께 보여주셨다. 성공적인 크리스천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sup>54)</sup>

---

52) Ibid., p. 36.

53) Ibid., p. 43.

54) Ibid., p. 44.

2. 상담에는 내담자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도움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한 중요하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내담자는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고 상담자의 도움으로 사태가 호전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상담 과정이 좀 고통스럽다 할 지라도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야 한다. 즉 도움을 받으러 나올 때 내담자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병 고치는 사역 가운데 이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주님께서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두 명의 눈 먼 사람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 그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의 치유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성경에 묘사된 믿음은 희망이나 기대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관시키고 있다.(히11:1)<sup>55)</sup>

3. 상담자가 내담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공적인 상담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친화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 니고데모와의 지성적인 관계를, 바리새인들과는 직접 대결하는 관계를, 마리아와 마르다와는 좀 더 느긋한 관계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지셨다.

상담은 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때에 따라 그 관계는 친근하고 친밀하며 서로 감정과 염려와 필

---

55) Ibid., p. 47.

요를 나눌 정도로 매우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돕는 관계는 관계된 사람들의 성격과 고려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견 교환의 깊이와 상담자와 상담을 받는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원근감에 따라 달라진다. 상담은 돕는 과정이다. 그러나 돕는 행위는 관계를 수반한다.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담은 더 성공적일 수 있다.<sup>56)</sup>

4. 상담은 내담자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 이 세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속적인 상담과 기독교적인 상담 방법을 보면 감정이나 생각 또는 행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담 학자가 많은데 비해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강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경을 살펴보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이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정적인 측면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두 차례 우셨고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기도 하셨다. 예수는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정죄하신 적도 없다. 분명히 예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셨다. 상담 단계에 있어서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감정을 묵살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지성적인 질문들을 합리적으로 다루셨다. 주님은 도마를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요구된 합리적인 사실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또한 죄와 죄된 행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예수는 간음 중에 잡혀 온 여인을 보고 행동을 바꾸고 더 이상 죄를 범치

---

56) Ibid., p. 52.

말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는 지나치게 분주한 생활 방법을 바꾸라고 이르셨고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소유물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재신 다툼을 벌이던 두 형제에게는 탐심을 자제하라고 이르셨다.

주님은 그의 설교와 여러 개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 사람들의 죄로 가득찬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지적하시고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권유하셨다.<sup>57)</sup>

5. 상담에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상담은 또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담자가 또 다른 인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령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경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편안한 자세와 격려하는 표현의 사용, 탐색적인 반응의 주기적인 사용,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중간 중간에 내담자가 한 말을 반복하는 것 등을 통해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을 뜻한다.

둘째로,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때로 내담자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진술하기를 원한다. 예수께서는 실의에 빠져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실 때 유도 질문을 사용하셨다.<sup>58)</sup>

셋째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상담자가 심리적인 불구자들을 붙들어 주어 그들이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

57) Ibid., p. 56.

58) Ibid., p. 64.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지원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처음에 입을 열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실패에 대해 털어놓고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을 시인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타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넷째로, 정면으로 도전하여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유도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뒷받침 해주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해도 내담자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상당히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셨다. 정면 도전은 어려운 과업이다. 이것은 온화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을 피한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공공연한 저항이나 수동적인 저항을 감수할만한 용기를 지녀야 한다.<sup>59)</sup>

다섯째로, 가르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상담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내담자는 달리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상담자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가르침은 교훈이나 충고 또는 내담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 상담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자백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만나 그들의 행동이 죄스럽고 사랑스러운데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을 사랑 받을 개개인으로 받아 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다 더 화합하는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sup>60)</sup>

마지막으로, 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내담자들을 제자로 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

59) Ibid., p. 66.

60) Ibid., p. 71.

다.

제자화 과정은 적어도 다섯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람을 접촉하고, 말로 증거 하여, 회심의 지점까지 인도하고,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그를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법을 가르쳐 준다.

제자 훈련 상담은 전인격에 관심이 있다. 인간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전적으로 영적인 필요만 느낀다든지, 심리적인 문제만을 안고 있다든지, 사회적인 갈등만을 별도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순전히 신체적인 질병만을 앓는 존재가 아니다. 통일된 인격체의 어떤 한 측면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이 제자 훈련 상담의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상담자의 중요성과 내담자의 태도,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감정과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 상담 기술의 중요성, 상담 기술의 활용 그리고 제자 훈련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sup>61)</sup>

### 제3절 Lawrence J. Crabb의 성경적 상담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심리학자로서 기독교 입장의 상담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고 성경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성경적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역동성도 치료학상의 연마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2)</sup>

#### 제1항 격려의 상담

개인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

61) Ibid., p.74.

62)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2), p. 14.



따뜻함과 순수한 관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sup>63)</sup>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내 짐은 더욱 가벼워진 것처럼 생각된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힘을 제공해 주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 준다.<sup>64)</sup>

우리는 상호간의 사랑의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교회 내에서 상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제1단계의 상담이다. 격려에 의한 상담은 한 집단의 구성원이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알고 신실한 노력으로 이해해야 하며 상처받은 사람에게 연민의 태도를 증가시켜서 관심을 갖는데 달려 있다.

제 1단계 상담자들은 문제를 내 놓으려는 진지한 태도를 지니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관심을 툭 털어놓지 않고 약간 미온적으로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끊임없이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담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만 한다.

이 상담에서는 결코 미리 준비된 응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을 시작할 때 일련의 능숙하고 적절한 구절들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담자들을 신중히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공적이고 강압적이며 계획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상담을 오히려 그르치게 하는 수가 많다.<sup>65)</sup>

이 상담은 진정한 용납의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료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담자는 따뜻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급하게 충고하거나 신앙으로 말기라는 강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잠시 머물면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sup>66)</sup>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제1단계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

63) Ibid., p.191.

64) Ibid., p. 191.

65) Ibid., p. 195.

66) Ibid., p. 196.

## 제2항 권고의 상담

격려의 상담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제2단계 상담에 위탁하여야 한다. 내담자들이 매일 부딪치는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권위 있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상담자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서 행동의 과정을 결정해야만 할 때 몇 가지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노련한 충고와 상식 그리고 내적 판단이다. 이상의 것들은 유익할 때도 있지만 자칫 편견을 가지기 쉽고 제한되어 있으며 항상 과오를 범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지침도 있을 수가 없다.<sup>67)</sup>

그러므로 제2단계 상담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한 성경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내서이며 지침인 성경은 항상 쉽게 이해되지 않고 때때로 따르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제2단계 상담 훈련을 희망하는 후보자는 성경을 광범위하게 잘 알고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 훈련은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여러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둘째, 문제 상황을 취급하는 성경 전략의 취급과 셋째, 일반적인 인터뷰 기술에 초점을 둔다.<sup>68)</sup>

---

67) Lawrence J. Crabb, op.cit., p. 202.

68) Ibid., p. 207.

### 제3항 교화의 상담

제3단계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주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매주 2시간 반에서 3시간의 강의를 받는다면 제3단계 상담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69)</sup>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어떻게 중요성과 안전감을 갖는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가정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잘못된 행동들의 밑바닥에서 사고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신념들은 잘못된 감정들을 발생시켜 잘못된 행동들을 낳았다. 성경은 한 사람이 생각하고 믿는 것 즉 사고의 세계가 그의 기능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깊이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가 믿는 것을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은 중생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되는 혁명적 변화의 신앙에 달려 있다.<sup>70)</sup>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가정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마음의 숨겨진 부분들을 깊이 살펴보고 중요성과 안전에 관한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들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내담자의 신념들을 노출시키며 우리의 필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된다는 진리 안에서 새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sup>71)</sup>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의 상담 이론 속에는 네 가지의 장점이 있다.

첫째로, 그의 이론은 올바른 교회론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의 몸

---

69) Ibid., p. 210.

70) Ibid., p. 211.

71) Ibid., p. 212.

으로서의 교회 이해를 통해서 지체 생활의 의무로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하는 공동체 이해는 매우 훌륭한 점이다.

둘째로, 그의 이론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올바른 자존감과 안전의 근원으로 다른 심리요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원천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고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셋째로, 그의 이론은 성경과 심리학을 올바르게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리학 박사로서 자신의 해박한 심리학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놓고 그 권위 아래 심리학을 도구로써 사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상담 방법론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넷째로, 그의 이론은 지교회 지도자인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상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서로 상대방을 올바르게 격려해 주는 방법을 터득할 때 교회는 한결 더 따뜻함과 생명력을 찾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의 상담 이론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그의 이론이 너무 이론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그의 주장대로 자존감과 안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복잡한데서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담의 진행단계가 그의 주장대로 이론적으로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권면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화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방법론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보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담

방법과 그 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이 결핍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제4장 그리스도의 상담론

### 제1절 상담자로서의 그리스도

신약성경에는 수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는 상담 사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 따른 활동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예수의 상담은 “선한 목자”(요10:11,14)로서의 상담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그의 양을 아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기도 했다.(마9:36)

그는 그의 선교 계획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이해하셨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중하게 여기셨으며(마8:12-14), 베드로를 향하신 마지막 명령도 “내 양을 치라”는 목회적인 것이었다.

예수는 그 스스로 양을 위하여 지도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회상담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예수가 제시한 양의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로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교인을 상징하고 있다.<sup>72)</sup>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상담자이시다. 이사야는 예수를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였다.(사9:6) 또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사11:2)이라고 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분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의 양떼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치유해

---

72) 권양순, “전인치유의 효과적 방법연구”, 「의료선교학 석사학위 논문」(서울: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1972), p. 6.

주는 현대 목회 상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던컨 뷰케니(Duncun Buchanan)은 “예수 상담”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상담자로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도우려는 것이다”<sup>73)</sup>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상담자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상담자이신 예수께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하는 목적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예수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은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목회 상담자는 상담 사역을 돕는 조력자라고 말할 수 있다.

## 제2절 그리스도의 상담 목표

목회 상담의 목표가 어디있느냐 할 때 그것은 목회활동의 목표와 동일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겠고 또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목회 상담 그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에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74)</sup>

권면적 상담 이론을 제창한 아담스 (J. E. Adams)는 상담 목적을 하나는 영혼 구원이며, 다른 하나는 성숙한 인격과 생활이라고 주장한다.<sup>75)</sup>

---

73) Duncun Buchanan, *The Counseling of Jesus*, 천정웅 역, 예수 상담(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7) p. 19.

74) Ibid., p.145.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은 상담 목표를 보다 풍성한 예배의 경험과 보다 효과적인 봉사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증진시키는 것이며<sup>76)</sup> 상담의 목표를 성숙<sup>77)</sup>이라고 말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일관된 성경적 방식으로 어떤 문제되는 환경에 즉각 대처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굳게 선 내면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승화된다고 지적했다.<sup>78)</sup>

사도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양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요10:10)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 목적은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다.

던컨 뷰케니 (Duncun Buchanan)은 “상담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내담자로 하여금 그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sup>79)</sup>

그러면 상담 목표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해 보기로 한다.

#### 1.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을 깨닫게 함<sup>80)</sup>

일찍이 온 인류에게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동반자, 즉 유일한 구원자가 계셨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히4:14-15)

---

75)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op. cit., p. 37.

76) Lawrence J. Crabb, op. cit., p. 37.

77) Ibid., p. 23.

78) Ibid., p. 31.

79) Duncun Buchanan., op. cit., p. 179.

80) 황의영, op. cit., p. 150.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체휼이란 뜻은 내가 처한 곳에 이르러 나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내 편에서 분다는 것이다. 즉 나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고 지지하고 변호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들의 친절한 친구로서 죄인들과 더불어 사신 것이다.

목회 상담은 불안에 사로잡히고 고독을 삼키며 살아가는 내담자로 하여금 우리들로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관계를 경험케 하는 과정인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생활<sup>81)</sup>

목회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러한 인격을 토대로 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표로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한 목표가 된다.

목회 상담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결과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생활, 즉 닮음의 현재 진행과정에 설 수 있는 대열에 참여케 함을 우선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닮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개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느냐라는 뜻도 된다.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생활은 우리의 육의 성품이 죽고 영성이 살아나서 삶 전체가 믿음으로 윤택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3:12)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 모습을 목표로 정하고 그 쫓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

81) 황의영, op. cit., p. 155.



이러한 꺾대를 향한 생활의 전개, 그 과정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 값은 이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살아간 것 뿐이었다. 그리고 점차로 자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고 그의 절대 주권 하에 움직이는 생활의 귀중함을 고백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바람직한 생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고 말한 대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서 그가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듭남의 새로운 삶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 3. 영적 성숙<sup>82)</sup>

영적 성숙이 내담자에게 촉진되어져야 함을 목회상담자는 특히 기억하고 목회 상담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적 성숙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상태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엡4:22-24) 중생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4:15) 하신 대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영적 성숙임을 전제하는 말이다. 이것이 목회 상담의 목표인 것이다.

---

82) 황의영, op. cit., p. 158.

#### 4. 영혼 구원

와이즈 박사는 “상담의 목적은 죄를 짓는 과정들을 수정 또는 진도시켜서 내담자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83)</sup>라고 하였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창조능력을 충분히 발견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sup>84)</sup> 하였는데 정말로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만 가지게 된다면 목회 상담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신 속에서 새로운 삶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죄가 떡과 같이 겹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도말됨을 확실히 믿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롬5:20-21) 복음의 진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혹 죄책감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케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결국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죄사함,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첩경이 된다. 또한 사죄는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죄의 고백은 곧이어 구주를 고백하기에 이른다.

---

83) Carroll A. Wise, *Pastoral Counseling*, 이환신 역, 목회 상담(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9), p. 98.

84) *Ibid.*, p. 100.

### 제3절 그리스도의 상담 사례

#### 1. 니고데모와의 상담<sup>85)</sup>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예수님의 상담 영역에서 중요한 모델이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마음이 끌렸지만 자신의 위치를 끈질기게 고수하였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통찰력과 학식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상담을 이끌어 갔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마음이 도달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인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신다.

니고데모와의 상담 패턴은 분명하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현재 위치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를 순전히 지적 차원에서 그가 잘 아는 믿음의 새로운 시계로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놀라운 용기를 갖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삶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요인이 되었다.<sup>86)</sup>

#### 2.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sup>87)</sup>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당시의 시대적 통념을 초월한 것으로써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의 교역이 모두 필요한 여인이다. 그는 치유 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미 다섯 명의 남편들과 이별하였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

---

85) 요한복음 3:1-21.

86) Ibid., p. 185.

87) 요한복음 4:3-45.

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여자이다.

그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으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sup>88)</sup>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위한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한다. 예수는 그녀에게 그녀를 위한다는 확신을 심어 준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목회요, 예수의 상담이 위로의 성격을 갖는 상담임을 보여 준다.

예수는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보게 만들었고,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게 인도하고 있다. 예수는 이 여인과 상담하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 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만들고 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에게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촉구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의 기쁨과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이 여인의 화해를 성취시킨다.<sup>89)</sup>

예수는 삶의 현장에 산재한 문제들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므로 피상담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셨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삶의 현장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점이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통하여 접촉점을 찾는다.

---

88) 오성춘, op. cit., p. 82.

89) Ibid., pp. 93-99.

둘째, 변화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변화의 소망을 주어야 한다. 인간을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피상담자의 약점을 들추고 이것 때문에 그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을 직시하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상담을 전개시켜야 한다.

### 3.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의 상담<sup>90)</sup>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의 사건은 성경적 상담에서의 귀중한 교훈을 하고 있다. 예수는 여기에서 자신을 울무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는 그 여인을 둘러싸고 정죄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녀를 대하셨다. 결국 예수께서는 율법과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 막 던지려고 한 돌들이 그들 자신에게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뷰케니(Buchanan)은 예수의 상황 처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sup>91)</sup>

첫째, 그 분은 냉엄한 판단자가 아니시다. 이 사건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은 그 죄의 범위였다.

둘째, 그 분은 그 여자에게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사랑을

---

90) 요한복음 7:53-8:11.

91) Ibid., p. 187.

나타내고 관대하셨다.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그 분은 실로 생명이셨다.

셋째, 그 분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셨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넷째, 그녀를 보낼 때, 비록 그녀가 행하였던 것을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도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 있어서 참된 본질을 간파하셨고 그 속에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sup>92)</sup>

#### 4.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sup>93)</sup>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당한 어머니와 나인성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준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인한 암울한 분위기 속에 찾아가서서 죽은 청년을 말씀으로 일으켜 살려 놓은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참 삶의 구주임을 알게 하였다. 동시에 예수가 인류의 희망임을 체험케 하고 능력자임을 확신케 하였다.

#### 5. 막달라 마리아와의 상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특히 그녀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한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상담 모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sup>94)</sup>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sup>95)</sup>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마리아에 대한

---

92) Ibid., p. 185.

93) 누가복음 7:1-17

94) Frank Lake, Clinical Theology(Darton : Longman and Todd, 1966), pp. 446-459.

95) 요한복음 20:1-18.

예수의 상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예수께서는 의존성을 구체적으로 권징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의존성의 표현을 허락하셨다.

둘째, 예수께서는 그 의존성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는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 좀 더 중요하고 필요한 다른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셋째, 그 필요한 일이란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sup>96)</sup>

#### 6. 베드로와의 만남<sup>97)</sup>

고기 잡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관한한 누구보다도 그 바다 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날 어떤 시에 어느 장소에 고기가 몰려든다는 것에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전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상황에 예수가 찾아왔다.

예수는 베드로의 경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이였다. 그러나 그 방법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가 될 수 없었다. 경험은 없었지만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하여 베드로를 순종의 제자로 만들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는 세상적 삶의 도구나 방법은 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베드로에게 예수만 필요했고 그 속에 예수만 남게 되었다.

---

96) Duncun Buchanan, op. cit., p. 187.

97) 마태복음 4:18-23

## 7.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제자들과의 상담<sup>98)</sup>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크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자 중 일부는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병어리 귀신들려 간질병 증세를 보이는 소년을 고치지 못해 좌절에 빠져 있었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관한 두 번째 예언을 하시자 제자들 사이에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적당한 시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들에게 섬김의 교훈을 하셨다. 그들의 논쟁이 아주 유치하고 무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바른 상담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하신 것은 첫째, 그 표현 방법이 보잘 것 없어도 제자들의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였다. 둘째, 그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문제, 즉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sup>99)</sup>

### 제5절 그리스도의 상담 원리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예수의 사역은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상담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상담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청함이다. 경청함이란 말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상담자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들을 뿐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들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니고테모와의 대화도 경청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니고테모의 말을 경청하였

98) 마가복음 9:33-37.

99) Duncun Buchanan, op. cit., p. 185.



기에 니고데모도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죄와 모순까지도 청취하시는 능력이다.<sup>100)</sup> 그리하여 그 죄와 모순을 지적하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신다. 즉, 예수에 의하여 경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었다.

둘째, 회개와 용서이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의 가르침이 세례요한의 계승에서부터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세례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예수께서도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전파하시므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중심에는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인 회개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회개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의 준비를 갖는다.

예수의 비유들은 회개의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차 있다. 산상보훈의 교훈에서도 용서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회개의 필요성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의 상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셋째, 사랑이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뒤엎은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써 실제 몸으로 보여 주신 것이며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통한 실제적 상담을 하셨고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원리로써 오늘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

100) 마가복음 3:1-6.

## 제6절 그리스도의 상담 특징

### 1. 예수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다<sup>101)</sup>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교육 방법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개인적인 면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상담사역의 기초가 된다. 예수에게 있어서 개인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보다는 개인을 만나는데 더 열 힘을 쏟았다. 예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예수의 가장 뛰어난 주목의 가치를 지녔다. 모든 개인들은 자기의 개성과 개인차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특별하게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예수는 개인과 대화를 했고, 그들의 장점을 이끌어 내었고, 양심의 작용을 인정하였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가르쳐 주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님은 큰 무리가 피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따르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의 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면 분명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102)</sup>

예수는 3년 동안 그의 일을 하시면서 개인들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이 세상을 구속하는 예수의 방법은 위대한 시기나 어떤 동력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평범하고, 흔하고, 매일의 생활의 보편적인 사건에서 그에게 온 기회를 이용하였고 그 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에게 전부 주는 것이었다.<sup>103)</sup>

101)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서울: 지혜문화사, 1983), pp. 116-120.

102) McCoy C. F, The Art of Jesus as a Teacher(Philadelphia : The Judson Press, 1930), p. 146.

103) Calkins. R, How Jesus Dealt with Men(New York : Abingdon-Cokesbury Press, 1942), p. 146.

또한 혼 (Horne)은 “예수는 개인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고 무리들의 성격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일하셨다. 그는 개인들은 신뢰하였지만 무리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도 않았다”<sup>104)</sup>고 예수가 개인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강조했다.

우리는 예수의 이 교육 방법을 본 받아 개인 상담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를 해야 한다. 예수는 수많은 군중을 가르쳐서 얻는 교육 효과보다는 한사람씩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했다. 이 점을 우리는 특별히 유의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 2. 예수는 배우는 사람들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가르쳤다<sup>105)</sup>

사랑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인다고 어거스틴은 말했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영원히 거룩한 선생으로서의 성공을 거둔 분이시다. “예수의 사랑의 정신 때문에 그의 모든 제자들은 항상 심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의 사랑의 교육에 대해 스튜어트(J. S. Stewart)는 잘 지적해 주고 있다. 피상담자와 상담자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상담 방법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3.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상담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개발시켰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좋지 못한 성격을 소유했던 자들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다. 그 이유는 그들에

---

104) Horne H. H, The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 : Fleming H. Revel Co., 1937), pp. 108-110.

105) 천정웅, op. cit., pp. 108-110.

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내다 보셨기 때문이다.<sup>106)</sup>

예수는 베드로의 충동적인 과거의 성품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를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시고 초대 교회의 기초석 같은 인물로 양성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아들인 요한의 격한 감정적인 성격이 사랑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말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는 마음과 넓은 이해가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인격적인 상담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수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까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문제를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골치 아픈 피상담자들의 속에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모범적인 피상담자들이라도 기대를 걸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도 타락할 가능성이, 즉 하나님의 형상과 악마의 형상도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양면의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고 바른 신앙 상담과 인격적인 상담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효과 있는 상담이 될 것이다.

#### 4. 예수는 피상담자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담하였다

예수의 상담 방법은 일방적이거나 주입식이 아니었다. 그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였다. 그 방법으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택했다.<sup>107)</sup> 또한 예수는 강제적으로나 명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피상담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따라오게 하지도 않으셨다.

106) 천정웅, *op. cit.*, pp. 97-103.

107) *Ibid.*, pp. 103-105.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 작업에는 정열적인 격려와 열심히 있는 동시에 자신의 뛰어난 지식이나 인격의 중량을 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사상의 큰길을 개방하였고, 취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암시를 제시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밝은 빛을 비추었으나 항상 제자들의 마음과 양심에 궁극적인 선택을 부여했다.

예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한다. 피상담자들도 이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상담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억지가 아닌 자의적으로 행동하게 하였다.

상담자들은 피상담자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피상담자요, 가난한 자요, 문제점이 많은 자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그의 인격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5. 예수는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를 취급했다<sup>108)</sup>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시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귄을 갖게 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고, 선택했고, 화해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음을 강조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함을 가르쳤다.<sup>109)</sup>

예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취급하신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 니고테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 나라에

---

108) Ibid., pp. 114-115.

109) 요한복음 3:16, 15:16.

들어갈 수 있느니라”<sup>110)</sup>고 하시면서 선생이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중생을 먼저 가르치셨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인간의 깊은 내면적인 문제를 취급했다. 따라서 인간의 피상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데서부터 핵심적인 문제를 취급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제6장 목회 상담을 통한 사례 연구

### 제1절 알콜 중독자 상담사례

#### 1. 목회자에게 오게 된 경위

(인천 연수동에 사는 L씨를 대상으로 5주에 걸쳐 상담한 내용.)

S교회는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해 있다.

연수구(교회까지 40분거리)에서 출석하시는 여집사가 하루는 L씨를 전도해 온 것이다.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지친 삶에 찌든 모습이 걸인과도 비슷해 조금 나오다 말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출석하시었고, 저도 조금씩 그분과 심방(상담)을 통해 그분의 삶과 상황을 조금씩 접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 오전11시를 정해 정기적으로 상담하기 시작하였다.

L씨는 옛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한때, 베이스기타 리스트로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이란 노래를 부른 키보이스의 보컬을 맡은 분이다. 나름대로 음악 쪽으로 재능이 있었고, 많은 후배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정말 화려하게 살았다.

지금도 기타를 치면 환상적이기에 주위 사라들이 감탄을 하곤 한다. 그

---

110) 요한복음 3:3, 5.

러나 그의 그러한 음악적 재능이 자신을 파멸로 몰아갔다. 밤무대로 다니면서 술과 마약에 빠지게 했다. 처음에 소매치기였는데, 술과 마약에 빠지면서 다시 옛날 습성과 근성이 나와 다시 소매치기를 시작했다. 그의 그러한 타락으로 일생의 거의 반인 30년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2-3년 살다가 나와서 술과 마약으로, 소매치기로 다시 죄악에 빠져 다시 들어가 2-3년 이러한 반복적인 생활을 한 것이 지금 60평생의 세월을 지내온 것이다.

그의 부모는 편부모였고,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기에 나름대로 원망과 불신이 많았다. 그래서 어릴 때 집을 나와 혼자 이것 저것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초등학교도 못나온 상태이다. 그러니 당연히 한글도 몰랐다. 지금도 모른다.

본인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낮은 자존감과 사랑결핍증으로 더욱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여자, 술, 마약으로 인생을 살았고, 소매치기로 쉽게 돈을 벌어 하루하루 살아왔다.

이러한 타락의 삶, 폐인의 삶을 살다보니 주위의 후배들, 동료들도 다 떠나 이제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거기에다 카드에도 손을 대 카드빚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상태였다. 금액이 많아지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 피신해 있는 상태였다.

이리 저리 떠도는 노숙자의 생활을 하며 지하상가, 지하철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봉사기관에서 주는 밥을 먹고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산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머니가 사는 영세만 아파트 12평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지병까지 있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매일 술로 채우고, 인생을 후회하며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희망도 없고,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도 여러번 시도했다. 그때마다 번번히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결혼도 못해 홀로 독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름대로는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통해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의 삶에 습성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 늘 술과 쾌락으로 몰아간다. 술만 먹으면 알콜 중독이라 욕을 하며, 주위 사람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러 병원으로 가야 할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막했다. 어떻게 도와주고 상담하고 해결해야 하나? 고민했다. 막연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의지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L씨를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상담에 들어 간 것이다.

상담을 통하면서 L씨는 심한 열등감속에 자신을 비관했지만 이대로는 안되겠는지 삶의 의지도 보였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한 가닥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었다.

## 2. 제시된 문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술을 끊게 하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술 먹으면서 자신의 행동과 의지를 망각하고 난동을 부리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에 술을 끊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두 번째, 주위 같이 술먹는 사람들과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는가 문제였다.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기타 실력을 어떻게 활용시키느냐는 것이었



다.

네번째, 계속해서 상담을 하며, 매 주일마다 결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해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3. 상담을 위해 지켜야 할 조언들.

첫째, 어떠한 상황이든지 술을 먹지 말고, 술이 먹고 싶을 때에는 상담자(목사)에게 전화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아침이면 밥대신 술을 먹는 주위 선, 후배들에게 현관에다 “이 집에 술병을 들고 들어 올수 없습니다.”를 써서 붙인 뒤 철저히 지키라고 했다. 그리고 이후 상담자가 “이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붙여 주었다.

셋째, 교회에 한번도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상담이 이루어져 좋은 결과를 기대할 것을 권고했다.

넷째, 앞으로 교회 찬양단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며 섬길 것을 권고했다.

다섯째, 술 대신 과자나, 사탕, 음료를 집에가 갖출 것을 권고하며 사다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양로원이나 봉사기관에 가서 기타로 공연하고, 봉사하며 숨은 재능을 개발 할 것을 권고했다.

### 4. 가족배경

홀어머니와 남동생 한명이 있다. 모두 12평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동생도 독신으로 지내면서 알콜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나마 어머니에게 나오는 기초생활비를 통해 3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L씨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로 어머니를 많이 학대 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자, 속에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집을 나왔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나가버려, 재수없는 놈, 원수같은 놈 등” 막의 학대를 받아왔기에 부모의 기억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역기능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답게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으로 늘 자신을 확대하며, 세상을 비판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인아이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 5 가족 관계성 및 문제의 분석

L씨는 삶의 환경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 본인의 의지는 있었지만, 생각할 능력, 판단 정도가 늘 제자리였다. 어릴 때부터 편부모 밑에서 자라, 자유분방하게 자라온 터라 문제발단이 높아만 갔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개념없이 서로 간에 역할 모델에 충실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 속에서 자녀들에게 밀착관계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L씨는 아버지와의 분노, 갈등 속에서 결국 어머니를 등지고 가출한다. 이때 어머니는 아마도 폐쇄성을 보이며 심한 정신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을 나온 L씨는 자신을 인정하고, 감싸주고, 알아줄 대상을 찾고 그곳에 몸을 기댔다. 바로, 음악, 알콜, 마약, 여자등으로 심한 밀착 중독증세를 보였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60살이 넘어서면서 까지 그를 고통으로 몰아갔다. 이런 가운데 신앙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삶을 사려는 의지로 상담에 임한 것이다. 분명 발전된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 6 상담을 통한 치유 목표 계획

### 1) 초기상담

상담을 통해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를 알게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 것이다. 그래서 술을 끊고 교회생활을 통해 새로운 삶 속에서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교회 찬양 단에서 봉사하게 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의지로 환경과 삶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삶에 정체성을 갖게 했다.

### 2) 중기상담

교회뿐만 아닌, 주위 교회에도 기타연주 및 간증을 통해 더욱더 삶의 정체성을 심어주려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값진 일을 하다는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였다.

### 3) 후기상담

주위 양로원 및 봉사기관에 연계해 기타로 봉사하며, L씨가 할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집에서만 무력하게 보내는 상황들을 개선해 보려 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L씨는 작 적응해 나갔다.

## 7 상담 및 이유 과정

이제까지 한평생 참다운 삶을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L씨에게 예수를 통해 얻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소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봉사, 간증, 봉사기관등의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 역기능 가정 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온 L씨는 안타까운 인생을 한평생 살았기에 이제부터는 교회중심으로 참다운 삶,

기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상담을 하면서 L씨는 인생을 깊이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제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여 신앙의 자신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분명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8 상담 중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

L씨는 남동생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 동생도 알콜중독 이기에 토요일이면 자신도 모르게 같이 술을 먹고 교회를 빠지거나, 주위 사람들이 술을 권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마시므로 경찰서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생과도 자연스럽게 상담을 시도해 보려고 계획 중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9 평가

1) 초기상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상담을 통해 많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동생도 알콜중독, 동네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기에 환경에 얼마나 극복할지 미지수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극복해 보려 한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 봉사기관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

2) 중기상담

본인의 의지와 신앙의 열심이 있었으므로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상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상담자의 권고를 잘 듣고 실천해 나옴대로 예전의 모습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L씨의

모습이었다.

### 3) 후기상담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앙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와 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분명 주님의 은혜와 은총일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본다.

## 10 상담 경험을 통해 배운점들

### 1) 초기상담

상담자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상담하면서 L씨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과, 삶을 바꾸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중심의 목회상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도와,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상담하며 노력한 결과이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본다.

### 2) 후기 상담

가정의 기능이 역기능으로 흘러갈 때 자녀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낮은 자존감속에 부적응을 하는지 느꼈다. 작은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느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목회 상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지친 영혼,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목회 상담을 통해 많은 알콜 중독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께 나오길 기대한다.

## 제2절 은둔주의자 상담 사례

(인천 연수동에 사는 K씨를 대상으로 5주에 걸쳐 상담한 내용.)

### 1. 목회자에게 오게 된 경위

#### 1) 초기 상담

인천 S교회에 한 여집사 남편이 6개월정도 집안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는 수염도 안깎고 하루종일 밥만 먹고, 오락하고, 잠만자는 생활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오랜 경력의 미용기술자로 30년정도 사업을 했었지만,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뼈뚫어져 세상을 비판하다가 결국 은둔하며 사회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닌, 늘 부정적인 사고속에 사람들을 대했다. 자녀와 아내에게도 말을 폭언으로 상처주고, 욕을하고, 뜻대로 안되면 밥상을 엮는등 가정을 파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 지친 삶이었다. 결국 자신 때문에 가정 전체 위기가 온 것이다.

늘 옆에 있는 아내만 답달하며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정서적, 정신적 장애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상담을 하기로 접근해 보았다.

#### 2) 중기 상담

집으로 방문을 했을 때 K씨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만의 열등의 세계 속에서 사는 듯 했다. 수염도 길었고, 옷도 초라했고, 인생을 비관한 듯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집을 방문해 차 한잔을 권했다. 그리고 좋은 말벗의 친구가 되자고 권했다. 그랬더니 차 한잔 먹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냐고 그러자고 제안을 받아 들렸다. 희망이 보였다. 마음을 여는 그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가족에게는 말을 함부로하고, 자제되지 않은 생활을 해도 그래도 목회자라고 나름대로 격식에 신경 썼고, 관망하며 목회자(상담자)를 지켜보았다.

### 3) 후기 상담

K씨의 모습 속에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죽고 싶다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감 결여 속에서 강한 열등의식이 있었으며 낮은 자존감으로 자심감도 없었으며, 애정결핍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바랬으며, 무엇인가의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듯 보였다.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 새로운 삶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아내가 교회를 다녀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 축복된 말로 그를 위로하고, 자연스런 대화에 힘을 썼다. 그의 반응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 2. 제시된 문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둘째는, K씨의 사고를 바꾸어 이제는 세상을 접하게 하는 것이 문제였다.

셋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겨 예전의 이발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교회로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목적있고, 의미있는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 3. 가족과의 협력 상담 제안.

상담을 통해 K씨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당히 경계하는 말이었다.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상황을 인정해 주었고, 들어주며 이해하였다. 시간을 정해 놓았지만, 그의 말을 듣느라고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가 일수였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잘나갔던 시절을 대부분 이야기 했다. 과거에 집착해 있었다.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과 아내, 심지어는 자녀까지 원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했다. 힘들어도 수염을 깎고, 칫솔질을 하루에 한번씩 할 것을, 그리고 방향제를 선물해 방에다 두었다. 시간이 되면 분사가 되는 것이었기에 향기를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기대했다.

그리고 아내인 여 집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분간은 남편 비유 건드리지 말고 이해하고 인정해주어 가정에서 남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당분간 온 식구가 남편, 아버지를 세우는데 집중하여 협력할 것을 부탁했다.



대부분 남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상실했을 때 심한 스트레스 속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자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발전시켜 나아갈 자존감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4. 가족배경

지금 14평 임대 아파트에서 3식구가 살고 있는데 생활은 여집사가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녀도 아버지의 영향 탓인지 나이가 26인데도 일할 생각, 무언가를 할 마음도 없이 친구 만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가끔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 일하고 있었다. 역기능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모두 일어 난 것이다.

아버지가 아내를 무시하기에, 자녀 또한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 아버지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소리 지르며 큰 소리치며 엄마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 물론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싸움이 생기면서 가족 모두 괴로워하며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남편과 상담을 해보았다. 쉽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K씨의 가족구성원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K씨도 편부모 밑에서 자란 역기능 속의 자녀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K씨를 편업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키웠다. 부족한 것, 원하는 것 모두 어머니가 해 주신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사라지고, 늘 남을 의지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성인아이로 성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실패로 문제를 개선하여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의지결핍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여 될 때로 되라는 식으로 하루 하루 주위 형제 원망과 아내와 자녀 세상을 원항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다.

바로 K씨의 모습이 편부모 밑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대표적 모습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의지 없이, 문제해결 능력없이 누군가를 의존한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 5. 가족 관계성 및 문제의 분석

첫째, 남편은 현재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벗어 날 수 없었다.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였다. 편부모 밑에서 자란 탓인지 남을 의지하면서 그 의지의 대상이 없기에 낙심한 듯 보였다. 그래서인지 현실의 문제가 더욱더 깊어만 갔다.

아내도, 자녀도 서로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 희망도 새로움도 기대하지 않고, 하루의 삶을 날마다 무의미하게 살아갔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했다.

둘째, 가족 가운데 서로 역할모델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대화가 부족했고,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가정은 점점 역기능가정으로 흘러갔다. 서로 꾸밈하면서 자신들의 기능에 대해 충실하지 못했다.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으며 서로 폐쇄성 있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도 없어보였다.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과 식구의 단합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물론 여집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겠지만, 예전에 다 해 보았는데 안됐다는 식으로 현재의 노력은 없어 보였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가족끼리 갈등 속에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 6. 상담을 통한 치유 목표 계획

### 1) 초기 상담

K씨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 소망을 부여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보였다. 반가운 모습이였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며 가까운 산책, 밤에 운동이나 슈퍼에 가는 정도를 권유했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있었다.

### 2) 중기상담

당장 일거리가 없더라도 교차로나, 예전에 친구들과 연락해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같이 낮에 가까운 산에 올라가 약수물도 먹고 점심도 사먹었다.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목회자의 권유인지라 할 수 없이 따라오는 상황이었다.

### 3) 후기상담

K씨와 상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나올 것을 권고했다. 같이 식사하고, 좋은 만남을 통해 열심히 살다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 것이라고 힘을 주며 권고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 새로운 각오를 보였다. 정말 반가웠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서 구역예배 겸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딸에게도 변화가 생겨 미용학원에 등록해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다.

목회상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담이었기에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끄신 것이다. 분명 앞으로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어 K씨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 7. 상담 및 이유 과정

### 1) 초기상담

K씨는 역기능 가정속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늘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은 본능 속에서 아이같은 삶을 살아왔다. 따라서 K씨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도하심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살수 있도록 하는데 상담의 목적이 있었다.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도, 사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으로 모든 위로와 사랑, 위로속에 살아갈 수 있기에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하였다.

목회 상담을 통해 좌절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새롭게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K씨는 조금씩 나아졌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성격의 장애로 아내와 자녀와의 갈등은 있지만, 심한 분노 속에 운둔하며 폭력을 행하는 심한 갈등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다.

### 2) 후기 상담

목회 상담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새로운 삶의 자부심과 의지를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일의 성취감, 열정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이지만,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상담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 8. 상담 중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

### 1) 초기상담

K씨는 신앙과 삶의 의지는 있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에 아

직도 아내에게 말로 상처주는등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지배해 왔던 낮은 자존감이 때때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의지는 있지만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푸념하는 식의 행동을 보였다.

## 2) 후기상담

K씨를 핑계로 남자들끼리 바다낚시라는 야유회를 갖다. 새로운 삶의 전환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갔다. 많은 이야기도하고, 새로운 삶의 비전도 나누었다. 한결 모습도 새로워 보였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담 중 이지만,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과나 나올 것을 기대한다.

## 9. 평 가

목회 상담을 통해 접근했을 때 많은 호감을 가졌다.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담에 임했다. 물론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담을 통해 새로운 모습속에 삶의 의미를 찾은 듯 보였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삶의 성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K씨뿐만이 아닌 가족과 주위 성도, 이웃들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0. 상담 경험을 통해 배운점들

첫째,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상담하고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으로써 가정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함에도 역기능속으로 몰아가 분열시키며 불행으로 이끄는 과정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속의 자녀들이 계속되는

아픔을 반복되는 일을 우리 목회상담자들이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목회 상담을 통해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복음으로 소망을 주어 가정과 삶에 새로운 화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이 결국 성인이 되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성인아이와 같이 반복된 일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결국 큰 불행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목회 상담을 통해 더욱 영혼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어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치유하고, 삶을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던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통해 접근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제3절 청소년 상담사례

(인천 석남동에 사는 P씨를 대상으로 5주에 걸쳐 상담한 내용.)

#### 1. 목회자에게 오게 된 경위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P군은 학교에서 폭력으로 정학 등 문제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비교적 가정은 평범하고,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여 왜 아들이 이처럼 폭력적이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까 궁금했다. 그래서 P군을 만나보기로 했다.

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문제학생이고, 자유분방해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었기에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주일날 상담시간을 정해놓고 상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자신을 방어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

고만 하였다. 한참 예민하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라 자신의 문제에 대해 노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패싸움등, 경찰서에도 몇 번 들어가 선생님들이 문제아라고 인정했다고 말한다. 학원비 가지고 체육관에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이제는 걸잡을 수 없이 싸우며,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고, 문제없이 학교 잘 다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우연히 학교 갔다 온 후 P군의 정체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착하고, 온순한 아들이 학교에서는 문제아이고, 폭력적이어서 정학까지 받았기에 어머니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상담을 통해 아들이 새롭게 신앙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였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 착실한 학생으로 보았는데, 부모의 시선이 없는 학교에서는 P군이 폭력적이라는 것이 목회자(상담자)도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 2. 제시된 문제

첫째, P군의 마음을 열어 그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P군이 상담에 얼마나 충실히 임할 것이냐도 관건이었다. 그래서 상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하기를 기대했다.

둘째, 이제 어떻게 하면 나쁜 친구들을 끊고 성실한 학교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보였다.

셋째,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앞으로의 비전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신앙으로 그 비전을 꿈꾸며 목적있는 인생을 살게하는 것이었다.

### 3. 가족배경

P군은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남 1녀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도였고, 별 문제 없는 가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P군과 상담을 하면서 가정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호인이지만, 교회 일을 잘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쉽게 분노하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로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것이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며 상처를 준다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아버지의 생각과 주장으로 늘 가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P군은 아버지에게 강한 분노감이 있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니, 신앙이니 모든 것이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식과 형식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처럼 교회일과 사람들에게 매너있고, 웃음을 주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아버지가 교회의 생활과 가정의 생활이 전혀 달랐고, 그것으로 이렇게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따라서 그 가정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아버지부터 상담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 4. 가족 관계성 및 문제의 분석



P군의 가정은 서로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고요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활발하게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족간에는 모두 원한 관계로 상처 받는 역기능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문제는 P군의 문제뿐만 아닌, 아버지, 어머니, 딸 모두 해당되는 집단 상담의 문제였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상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분노로 어머니는 폐쇄성있는 정신분열로 아들을 지나치게 의지해 아들로 하여금 위로받고,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보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P군은 어머니의 기대에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전혀 다른 폭력, 싸움, 반항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에 어머니에게도 자식에 대한 배신과, P군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로 혼동된 삶과 가족 모두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문제원인을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아들의 폭력을 혼내키고, “네가 하는게 다 그렇지, 네가 뭘 하겠어, 다른 애들을 좀 보라”등 아들의 열등의식과 자아의식을 더욱더 혼란케 했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아들을 고통으로 몰아가 결국은 친구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몰아간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지만, 싸우고, 인정받고, 같이 불량스런 행동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이런 진단을 했기에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원인을 해결하고, 치료하면 그동안 굶아온 상처가 나올 치료될 것이다.

## 5. 상담을 통한 치유 목표 계획

### 1) 초기상담

상담을 통해 제일 되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돕는 것과 부모의 소중성에 대해 알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회와 가정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야만 했던 P군에게 진정한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생기며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기울였으며, 부모님의 소중성을 통해 가정을 사랑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부모가 된다는 위기의식을 상담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정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을 두었다.

## 2) 중기상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닌, P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지금 아버지의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기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자신의 비전, 사명을 상실하지 말고 인생을 계획할 것에 초점을 두었다. 비록, 지금은 아버지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고, 억눌림을 당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넘기면 분명 자신을 극복하는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 3) 후기상담

P군이 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려 애를 쓴다든지, 인생을 생각하며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또 싸울 때 혹시나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 합의금 또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했다. P군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상담에 임했고, 새롭게 나아가길 소망했다.

## 6. 상담 및 이유 과정

P군은 처음부터 나쁜 불량청소년이 아닌, 아버지에 이중성에 대해 반항적인 기질을 보인 것이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했다.

이제까지 겪었어야 할 P군의 고통, 밖에서는 호인이요, 가정에서는 폭군으로써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삶의 회의, 신앙의 회의를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으로 변해 주위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과 충격을 주었지만, 계속해서 상담하고, 자신의 신앙과 의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까지 역기능 가정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폭언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P군에는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분명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 7. 상담 중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

P군의 아버지에게 문제의식을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자신의 위치가 있기에 가정 속에서 드러난 모든 것을 목회자가 알고, 또 이를 치료하려고 할 때 적잖은 고통과 충격,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기 문제고 안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P군과 대화를 어느정도 하냐, 그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냐,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등 균형있는 아버지의 상을 권면하고, 시간을 내 가정에서 자녀들과 적어도 하루10이상 대화할 것을 권면했다.

아들의 고민이 바로 사랑 결핍이다. 감싸주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해시키며 같이 P군의 학교생활을 치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버지는 난감해 하면서도 아들에 관한 일이기에 기도하며 같이 노력하자고 권면을 받아 들였다. 기도하며 협동으로 노력하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 8 평 가

### 1) 초기상담

처음에는 P군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고민을 고백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되찾을 것이다.

### 2) 중기상담

P군의 의지로 원인의 문제 해결이 안되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아버지와, 자신의 한계가 있었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공조해 협력상담, 치료를 하다보면 빠른 문제해결이 있을 것이다. P군은 아버지와 얽혔던 문제들이 풀리면 삶의 방향이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되리라 본다.

### 3) 후기상담

아버지와 어머니 노력으로 P군은 좋아지고 있었다. 앞으로 계속 상담하고, 특히 가정에서 온기능의 역할을 해야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성을 인식한 채 하나가 된다면 분명 크게 개선된 것이다.

모두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에서와 같이 희생하고, 가족 상호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쓰며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들을 풀릴 것이고, 더욱더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 9. 상담 경험을 통해 배운 점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교회와 가정의 생활에 이중성을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교회뿐만 아닌, 가정과 삶 속에서 헌신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균형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P군은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제 싸움은 안한다고 한다. 아직 친구들은 만나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목회상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자와, 부모와 상담자가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 목회 상담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 제7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목회상담의 개혁주의적 접근"에 대한 연구를 위한 문제들을 여러 이론을 통하여 정리하고, 논의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전체적인 요약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요약

목회 상담에서의 개혁주의적 상담은 목회를 돕는 사역의 일부분이며,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상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의 목회적 방법에 기초해서 목회를 돕는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

보는 일에 목회 상담은 필요하고, 그중 특별히 가정 상담은 필수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위에 튼튼히 세움에 있어서는 좀더 깊숙한 인격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 실제 피부로 느끼는 끈끈한 정이 필요할 것이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는 깊은 상담의 교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본고에 논의된 여러 가지 논제들은 상담에 대한 이론이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목회 상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목회자는 상담자로서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2. 제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상담자이심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은 너무 다양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방법 가운데는 예수의 방법과 동떨어진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상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예수는 보혜사로서 인간의 전인치료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오셨고, 성령으로서 상담하셨으며,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상담하셨다.<sup>111)</sup>

본 논문은 상담목회의 성경적인 기초를 살피고 예수의 상담 실재를 위해 가장 잘 알려지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 사람의 상담이론과 연구 방법을 연구 검토하였다. 또한 상담자로서의 예수의 모습과 그 상담의 목표와 원리와 특징들을 살피고, 실제로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상담하셨는가를 살펴보았다. 과연 예수 그

---

111) 김득룡, 기독교 교육 원론(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3), pp. 241-253.

리스도는 분명히 효과적이고 훌륭한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 분은 자신의 인격, 성품, 기술들을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셨다. 예수는 상담사역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구원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셨던 것이다.

예수는 상황과 피상담자의 특성과 또 구체적인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셨다. 때로는 주의 깊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셨고 다른 경우에는 명백한 지시도 하셨다. 예수는 격려하시고 지지하셨으나 대항도 하시고 도전도 하셨다. 그 분은 죄지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셨다. 그러나 회개와 순종과 행함도 역시 요구하셨다.

목회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게 된다. 예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자극하시기에 앞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들을 수용하셨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유도 질문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예수께서 여러 유형들의 사람들을 상담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피상적이고 외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사건들을 통찰하셨다. 그 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틀에 매이지 않으셨다. 그 분은 각 사람이 개성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들을 다루셨다. 또 한가지 예수의 상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영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신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사회는 변하고 그에 따른 목회의 형태 역시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위임자로서 목사의 사역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변할 수 없으

며, 이 시대에도 목회 사역을 위하여 부름 받은 목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목회상담에 중점을 주어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은 상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표설정도, 방법도,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온전하게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이해하고 더욱 연구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상담을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서적

- 김득룡, 1983, 기독교 교육 원론(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 김태묵, 1970, “목회자의 상담”, 목회와 신학, 제3집(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 민영순, 1974, 교육 심리학(서울: 교육 출판사)
- 반피득, 1978, 목회 상담 개론(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 오성춘, 1994, 목회 상담학(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 천정웅, 1983, 교사이신 예수님(서울: 지혜문화사)
- 황의영, 1983, 목회 상담학 원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 이현규, 2003, 목회상담학(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 이정희, 1993, 상담자 예수(서울: 그린파스츄어)
- 김재술, 1980,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세송문화사)
- 정정숙, 1993, 기독교 상담과 주변 학문의 이해 (신학지남, 제60권 3집, 가을호)
- 오성춘, 1993, ‘목회상담학’신학연구도서시리즈 12권 (서울: 한국장로 교출판사 )
- 김진호, 2003,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 이관직, 1997,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목회상담연구소)
- 정성구, “한국 장로교회 자화상과 미래” 「제29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 회」

### 2) 번역서적

- John Patton, 2004, 목회적 돌봄과 상황 , 장성식 옮김, (서울: 은성)

- Howard Clinebell, 2003, 목회신학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Jay. E. Adams, Pastoral Counseling, 정삼지 역, 1985, 성공적인 목회 상담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 Carl R.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승호 역, 1983,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 Howard J. Clinebell, Basic Types of Pastoral Counseling, 박근원 역, 1987, 목회상담 신론(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 Seward Hiltner, Pastor Counseling, 마경일 역, 1978, 목회 카운슬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1978, 목회 상담학(서울: 세종문화사)
- Gra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 이해련 역, 1995,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 두란노서원)
-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1994, 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 Gary R. Collins, Helping people Grow, 정석환 역, 1993, 카운셀링 가이드(서울: 기독 지혜사)
- Lawrence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1982,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 Duncan Buchanan, The Counseling of Jesus, 천정웅 역, 1987, 예수 상담 (서울: 아가페 출판사)
- Carroll A. Wise, Pastoral Counseling, 이환신 역, 1969, 목회 상담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 Lawrence J. Crabb, 1984, '성경적 상담', Geri R. Colesn 편 (Grand

Rapids : Zondervan)

4) 외국서적

Frank Lake, 1969, Clinical Theology(Darton : Longman and Todd)

McCoy C. F, 1930, The Art of Juses as a Teacher(Philadelphia :  
The Judson Press)

Calkins. R, 1942, How Jesus Dealt with Men(New York :  
Abingdon-Cokesbury Press)

Horne H. H, 1937, The Philosophy of Christion Education(New Y  
ork : Fleming H. Revel Co)

4) 논문

박국배, 1989, '상담자 예수의 상담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양순, 1972, "전인치유의 효과적인 방법연구, (서울: 아세아 연합신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성경인용 및 사전.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 교문사,

요한복음 4:3-45. 요한복음 3:1-21. 요한복음 7:53-8:11.

누가복음 7:1-17. 요한복음 20:1-18. 마태복음 4:18-23

마가복음 9:33-37. 마가복음 3:1-6. 요한복음 3:16, 15:16.

요한복음 3:3, 5.

## Abstract

# The Reconstructionism approach of the pastoral counsel

Park heung kyu

Chongshin University pastoral theology graduate school  
(The adviser Kang Byung mun)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nstructionism Bible and approached with Reconstructionism view to pastoral counsel through studying three persons's theories who are famous for the real counsel of Jesus and have influence.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the step.

This study inspects the fundamental notion of pastoral duties and the goal and definition of counsel of the effective pastoral counsel. Also I focused on the pastoral counsel that is been dealing in the churches through real examples.

I approached the counsel examples to know what is the pastoral counsel through the counsel model of Jesus and how it has to go. We should understand the ways of Jesus according to the ways of the Reconstructionism counsel and we have to study

to incorporate pastoral counsel and apply to churches gradually, because a result can be changed depend on the correct goal and ways of counsel .

I studied the correct ways through Jesus because the curer is Jesus in counsel. Churches have to grow up through the effective counsel constantly.

We say Korean churches have grown up very fast but more studies and effort are needed in counsel part. Therefore churches should be mature churches, united churches and churches that solve problems. I hope we make mature churches in quality making counsel programs through the Bible in future.